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앙

점차 인공지능의 사용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무인 자동차가 대신 운전을 해 주니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의뢰기관에서도 이미 로봇을 사용하여 수술도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 처방도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해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방대한 판결 자료를 분석하여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배우자 선택 문제도 이상형, 취미, 가치관 등을 입력하여 알맞은 짝을 찾아 주는 AI 중매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챗GPT (ChatGPT)가 바쁜 목회자의 설교나 필요한 글쓰기 등을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뉴욕장신 졸업식에서 한 목사님은 챗GPT가 졸업식 축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교자는 어떤 본문이든지 챗GPT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설교해도 괜찮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그를 도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 일을 마치고 돌아 올 때 돈이 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에는 아마 중요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강도가 숨어서 다른 행인을 노릴 수 있으니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AI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여 남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섬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AI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I는 많은 정보(deep learning)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깊은 영성(deep spirit)과 깊은 통찰력(deep insight)은 줄 수 없습니다. 깊은 영성과 통찰력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때입니다(왕하 2:9).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VISION 2023 DISCIPLESHIP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32호 주후 2023년 8월 6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백에스라목사	우영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540장		
기도	이배준집사	김용호장로	지재홍장로
성경봉독	롬(Ro) 11:25-36		
찬양	예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신비 김중훈목사		
찬송	620장		
봉헌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 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8월 9일 오후 8:30

- 기도: 이미경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김경미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박영준집사
- 2부: 윤희주장로
- 3부: 박성우장로

8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백진아집사
- 3부: 김동욱집사, 김하나집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환영 및 축복: 출산 후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한 영아유치부 새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3부예배)
 Vivian Kang (강호빈집사&강시현집사) Caleb Lee (이상일집사&이은비집사)
 Harper Han (한우현집사&한혜수집사) Jordan Kim (김산집사&신혜나집사)
 Noah Shin (홍미래성도&신선성도)
- 수요일예배: F.M.A. 성경공부 '이사야 (1)'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Address: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동사목사 인사: 오세준목사 (1, 2 3부 각 예배별로)
- 정기당회: 8/6(오늘), 3부예배 후, 사랑방
- 중고등부 PTA 모임: 8/6(오늘), 12:45 중고등부 찬양대실
- 7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통독:5명/다독:146명
 * 친교실에 목장별로 통독 및 다독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년교육사역부)
- 교역자 동정: 백에스라목사 휴가. (8/7-11, 8/14-18)
- 중고등부 교사모집: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실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유명근목사)
-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시간 및 장소: 9/10 (주) 오후 5시, Madison Theatre, Molloy University
 1000 Hemshead Ave, Rockville Centre, NY 11570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 꽃: 김명숙권사 (손자생일)
 - 사랑의 식탁: 김상일집사&김신애권사(예형생일) 김호연집사&김보나집사(결혼기념)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오현섭장로 다음주: 한대영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5마을 다음주: 6마을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11am Service Only. Zoom QR Code:



교우동정

- 모친상 정미혜집사 (고 임옥심 권사, 7/30, 한국)
 최영희권사 (고 정옥주 권사, 8/2, 한국)
- 축득손 김미향권사 (Sandy Suhjin Davidson, 7/11)
 박성하목사&이옥경사모 (Daniel Intriago, 7/17)

행사예고

- 08/20(주)-22(화) 유년부 수련회 (Tuscarora Inn & Conference Center, Mt Bethel, PA)
- 08/20(주)-24(목) 중고등부 수련회 (Tuscarora Inn & Conference Center, Mt Bethel, PA)
- 09/10(주)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나의 삶의 이유(롬 10:5-13)

“아! 테스형, 인생은 왜 그래?” 라고 툭 던지는 나훈아씨의 노래 가사가 팬데믹 때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사는게 이토록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 보다. 인생의 문제는 소크라테스에게 묻기 보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구원은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쉬운 것인가?(6-8절)
 - 1) 구원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 갈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땅에 내려 오셨기 때문이다.
 - 2)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땅속(무저갱)에 갈 필요도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위대한 일(고행이나 수행)이 필요없다.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2.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9-10절)
 - 1)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다. 종은 자신의 자존심, 욕심, 게으름을 버리고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이다.
 - 2)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부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결국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3.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가?(11-12절)
 - 1)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먼저는 심판 날에 지옥 불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롬 8:34).
 - 2)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이다. 주인되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인생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해진다. 그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대신 잡고 운전해 주시기 때문이다. 정신이 맑아지고, 가치관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 ‘예수님 제일’이란 표어를 가지고 시작한 예일교회는 한 가정에서 12명이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셔서 지금에 이르렀다. 예일교회만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예일교회를 통해 섬기는 선교지마다 부요해졌다(볼리비아, 니카라과, 필리핀 등).

[결론]

1960년대 미국의 히피 운동은 많은 청년들을 가솔, 마약, 섹스로 몰아 넣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던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신앙생활이 문화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복음의 진수를 바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주라고 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개미는 먹이를 찾기까지 곡선을 수없이 그리며 이리 저리 방황한다. 그러나 먹이를 찾으면 집까지 직선으로 돌아 온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신앙을 문화 활동으로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는 이제 주 되신 예수를 바로 만나 직선으로 그의 품에 안길 때이다. 인생은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신다(요 8:29).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신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것이 삶의 이유이다.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